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전 윤 경
제 목	삶에 지친 그대여, 배움으로 행복하라!!		
<p>삶에 지친 그대여, 배움으로 행복하라!!</p> <p>“여자가 대학은 무슨. 시집만 잘 가면 되지!!”</p> <p>중학교 3학년 때, 손에는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원서가 들려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가 꿈인 나에게 칭찬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엄마의 목소리가 그렇게 야속하게 들릴 수 없었다. 꿈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소질과 적성에 없었던 여상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 20대의 젊은 청춘의 10년의 시간을 대기업에서 고스란히 보내었다. 의료보험 업무를 맡았었는데 지금처럼 전산화가 잘 되지않아 밤을 새면서 업무를 한 적도 많았다. IMF때 지방에서 서울로 지원을 하여 본사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원래 고졸 여사원이 서울로 올 수 없었는데, IMF라는 특이한 상황덕분에 서울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p> <p>결혼 후, 첫째 아이를 임신하고 몸이 힘들어 그렇게 사회생활을 중단하게 되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 몰려오는 육아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 웃음기를 잃어가고 있을 때, 방송통신대학교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마음에서는 늘 배움의 끈을 유난히도 놓지 않고 갈망하던 나에게 한낱에 쏟아지는 소나기마냥 즐거운 소식처럼 마음에 와 닿았다. 나에게 어떤 과가 맞을까 고민하다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터라 유아교육과를 선택했다. 방송대는 공부하는 것도 졸업하는 것도 어렵다고 들었지만,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졸업을 하여 4년제 대학이라는 졸업장을 손에 넣게 되었다. 이 작은 시작은 밑알이 되어 삶에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졸업장만 얻게 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졸업장 속에 담겨진 4년간의 이야기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준 응원의 샘물같은 것이었다. 중간고사 때가 되면 거실 한 쪽 벽면에 외워야 될 내용들을 프린트해서 도배를 한다. 유난히도 잠투정이 많았던 작은 아이를 등에 업어 매고 눈높이에 들어오는 프린트에 눈을 고정시키며 읽고 또 읽으면서 외워야 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날이면, 학교 운동장 한편에서 남편이랑 아이 둘은 그렇게 엄마의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놀고</p>			

있었다. 힘들게 밤을 새며 냈던 레포트 과제의 점수가 높게 나왔을 때 느끼는 그 희열감은, 밤을 새며 힘들게 공부했던 그 고생을 말끔히 씻어주기에 충분했다. 출석 수업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지금처럼 아이돌보미도 없었던 터라 사실 도우미를 3일 정도 이용하는 데 30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들이면서 수업을 가야 했다. 교수님께서 수업 중간에 해주신 동영상 속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집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서 평평 울었던 기억,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서 실습을 하면서 느끼던 생각들, 수업에서 알게 된 지식들이 나의 가슴 한편에 많은 보물들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길라잡이가 되어 주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남편에게 공로상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오면 나와 암묵적인 바톤 터치를 한 후 나는 곧장 독서실로 향한다. 본인도 퇴근 후에 피곤할 텐데 아이들을 돌보고 뒤늦은 아내의 공부를 응원하는 모습에 그때는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멋있는 모습이었다. 남편의 도움없이는 안되는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하루동안 지친 몸과 마음이 공부라는 통로로 다 흘러보내듯 그렇게 반짝반짝 내 눈이 빛날 수 없었다. 그랬다. 공부는 치유였고 배움은 지친 삶을 다독이는 상담자의 따뜻한 눈이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고, 삶의 풀어내지 못했던 한편의 엉켜진 실타래를 곱게 곱게 풀어내어 주면서 새로운 길로 그렇게 안내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었지만 무엇보다 공부를 통해 내가 무엇이든 배우면 잘 할 수 있구나 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에 정리수납전문가, 영양보호사, 사회복지사라는 분야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배웠다.

최근에 영어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손흥민 선수가 영어로 인터뷰하는 모습이 참으로 멋있었다. 영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영어와 사랑에 빠졌다. 심지어는 영어와 관련된 꿈을 꾸기도 한다. 외국분이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 달린 어린 소녀가 아프카니스탄 나라에서 글을 올렸는데 자신의 나라를 위해 자신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전 세계 곳곳의 나라에서 댓글이 달렸다. 나는 그 댓글에 당당히 여기는 한국이고 너와 같은 딸을 둔 엄마라고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영어를 접하기 전에는 있을 수도 없는데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세계가 눈에 들어왔다.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앱을 통해 알게 된 프랑스 여자분과 카톡으로 매일 안부를 주고 받고 이야기를 나눈다. 알게 되었다. 영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고,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영어를 배우기 전에는 영어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다르다. 영어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으로만 구분된다는 것을.

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보고 다음주부터 새로운 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꿈을 꾸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지만 영어를 완전히 자유롭게 구사를 해서 외국 환자분들을 간호할 수 있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고 싶다. 핸드폰을 열면 영어 콘텐츠가 쏟아져 나온다. 시간과 돈이 문제라고 핑계되었던 어제의 시간들은 다 흘러갔다. 이제는 손만 뻗으면 얻고 싶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속에 살고 있다. 우리의 열정만 있으면 된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일어날 것이다. 삶의 어느 한켠에서 삶에 지친 누군가가 있다면 주저없이 말을 건네본다. 무엇이든 배우의 끈을 놓치 않고 도전해 보라고. 배우고 나서의 당신의 모습은 이미 뭔가 배우기 전의 당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길 바란다.

요즘 모두 어려운 시기라고들 한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 헤맨다. 어디에 있을까? 동화책속에서도 말하듯이 행복은 그대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행복은 작은 배움 하나를 실천할 때 그때, 풀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하길 바란다.